

국내 유일의 아동도서 전문유통 '서당'

절대적 필요에 의해 출범, 과도기의 어려움 극복 노력도

우리나라의 유일한 아동도서 전문유통 '서당(대표 박강희)'이 첫발을 내디딘 지 2년이 가까워온다. 지난 93년 8월 '출판산업의 유통 전문화'를 표방하며 출범한 도서유통 '서당'은 각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어린이책들 가운데 비교적 양질의 책을 선별 구입, 전국의 어린이 전문서점에 공급해왔다.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어린이 전문서점은 전국을 통틀어 총 49곳. 어린이서점이 성인서점만큼이나 활성화돼 있는 서구의 경우에 비하면 턱없이 미흡한 숫자다. 그나마 처음 국내에 등장한 것은 불과 5년 전인 90년 12월, 서대문에 '초방'이 문을 열면서였다. 당시 부평남원 등 8군데에 지점을 두고 있던 '초방'은 동대문 도매상을 뒤지고 다니면서 성인물 속에 파묻힌 어린이책을 찾아내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출판사에 일일이 문의해 책을 구입해야 했다. 또 일단 구입한 책은 일일이 버스나 기차 화물로 지점에 공급했다. 그것은 일개 서점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작업이었으므로, 본격적인 '아동도서 전문유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 '절대적 필요'에 공감한 논정출판사의 박강희씨가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선별과정 거친 책들만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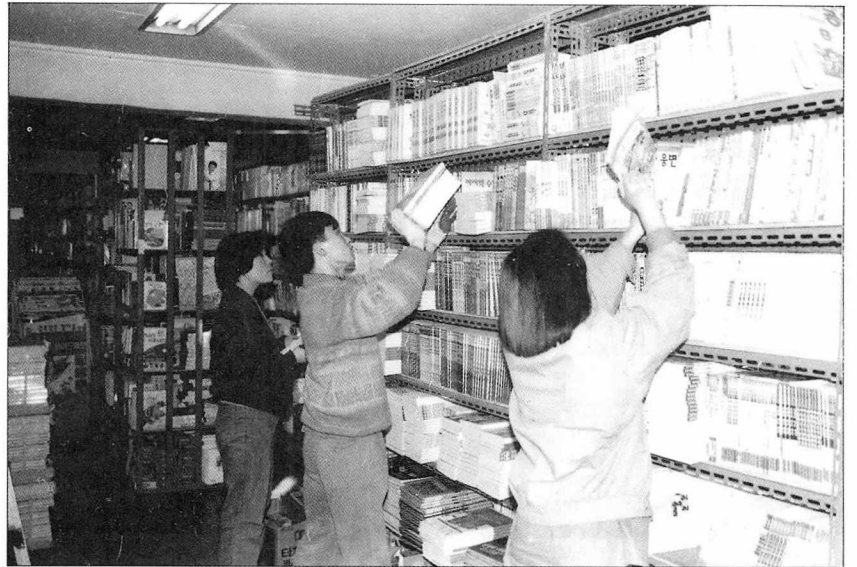
"당시만 해도 어린이책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나온다 해도 전집 출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30~50권에 이르는 전집을 가가호호 방문판매하니 사실상 거의 모든 수요량이 그쪽에서 소화돼버리는 형편이었죠. '서당'의 시장이래봤자 어린이 전문서점 여덟 곳뿐인

지난 93년 출범한 '서당'은 국내 유일의 아동도서 전문유통회사이다. 각 출판사에서 발간되는 어린이책들 가운데 비교적 양질의 책을 선별 구입, 전국의 어린이 전문서점에 공급하고 있다. 초창기엔 중수 자체가 적어 전집을 구입해 날권으로 공급하기도 했지만, 이젠 단행본 시장도 활발해 '어린이 문화'의 번창을 기대할 만하다는 전망이다.

데, 아이를 데리고 서점에 간다는 문화 자체가 부재한 열악한 상황에서 이윤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박강희 사장은 초창기의 어려움을 술회하며, "그때나 지금이나 상업성은 없는 이 사업"의 고충을 털어놓는다. '서당'의 활약으로 어린이 전문서점이 6배 이상 늘었고 지금도 서점운영을 희망하는 이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들어선 도서대여점에 밀려 치명적으로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학생 이상의 어린이들, 즉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는 연령층의 아이들은 '잘된 책'보다는 '입에 맞는' 책을 찾게 마련이라 대여점에서 취급하는 공포물·폭력물에 중독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양서를 접할 기회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서당'에서 각 어린이 전문서점에 공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2백 평 남짓의 '서당' 서가.

급하는 책들은 일단의 선별과정을 거친 것들이다. 유아 그림책과 블록·동화, 동요 테이프, 지능개발 교구, 국교생 글쓰기 교재와 창작동화, 위인전, 과학도서 등은 물론, 성인물로 유아교육관련서적, 글쓰기 독서지도 교재까지 포괄하고 있어 '어린이를 위한 거의 모든 책'이 구비됐다 할 만하다. 초창기만 해도 쓸만한 책의 중수가 태부족이어서 손해를 무릅쓰고 전집을 구입해 날권으로 공급해야 했으나, 전집시장이 주춤해짐에 따라 유통을 비롯한 선진국의 아동물을 번역한 '세련된 책'들이 속속 단행본으로 출간돼 어린이책 시장에 활기를 주고 있다.

국내창작물 부진해 아쉬움도

다만 아쉬운 점은 국내 창작물의 출간이 번역물만큼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힘든

과도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잘된 기획의 창작물이 쏟아져나오고 독자들의 인식이 향상된다면, 또 아슬아슬하게 꾸려가고 있는 어린이 전문서점들이 그때까지 잘 버티만 준다면 구미·일본과 같은 '어린이 문화'의 번창도 가능하리라는 전망이다.

'서당'의 박강희 사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어린이들도 좋은 책들을 보고 자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 현실로는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봉쇄돼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출판사가 좋은 어린이책 출간에 동참하고, 또 부모들의 인식이 높아져 어린이 전문서점의 좋은 점들이 폭넓게 알려졌으면 합니다."

—한 강 기자

한국출판문화상
아동부문
출판상
1994

영역별
연령별

**아너더
링링링**으로 아이를 영재로 키우세요!

알콩달콩 유아교육동화는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 1 MBC유아프로그램 '뽀뽀'의 작가 조문현 선생님이 집필
- 2 국내 최고 일러스트레이터 20명의 생생한 그림
- 3 전체 60권을 3~4세용 30권, 5~6세용 30권으로 단계별 구분
- 4 각 단계를 인지, 사회성, 정서, 탐구력, 언어발달의 다섯영역으로 세분화
- 5 각권마다 유아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 '함께 보는 어른에게' 수록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유아 그림책의 차별화 선언!

전 60권 ● 3~4세용: 30권(값120,000원) ● 5~6세용: 30권(값120,000원) ● 날권 판매 가능: 각권 4,000원